

# 첨단농업 보급 · 미래농업 선도

## 익산시, 청년 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촌 건설 주력

익산시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통한 스마트농촌 건설에 주력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는 올해 7억4,000만원을 투입해 4개 농업 분야의 청년 농업인을 육성한다. 시는 드론 조종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총 2억5,000만원을 투입해 총 11개소에 농업용 드론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 지원 대상인 3개소보다 확대됐으며 농업인들의 드론 수요와 활용 가치가 높음을 반영한 결과다.

효과적인 드론 사용을 위해 이날 말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방제단을 구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방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어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지원과 선진 영농 기술도입의 일환으로 스마트팜 설치와 장비도입을 지원한다. 스마트팜 기술로 최적의 작물생육 환경을 관리하고 가축 사양관리 기반을 조성해 고부가가치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한다.

이 밖에도 시는 청년 농업인 정책 자금 이차보전과 영농기반 임차지원, 동아리 활동 등 5개 사업에 약 2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청년들의 안정 정착을 유도한다. 시 관계자는 "첨단농업 보급과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에 도내 최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며 "농촌 고령화와 일손부족이 완화되고 안정적 소득 창출로 이어져 지역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김민서 전 익산시의원이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 “시민에게 희망을 드릴 것”

### 김민서 전 익산시의원, 익산시장 출마 선언

김민서 전 익산시의원이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익산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김민서 전 의원은 21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시장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명품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새로운 관광혁신과 신산업 도시를 탄생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호남 시장에 당선돼 익산에 예산 폭탄을 현실화시켜겠다”며 12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김 전 의원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 마사회 본사 익산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경주마 목장 조성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추진과 함께 익산역 광역복합 환승센터

구축, 물과 숲이 수려한 정주여건 조성에 도전하겠다”며 “국립 환경 테마파크 유치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바닥 신호등 설치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화물차 운전자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전북 최대 규모의 화물차 주차시설을 유치하고 손주(유아·청소년) 돌봄 서비스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맞춤형 실버인재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축곡기를 설치하겠다”면서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들을 위한 효강의 지원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전 의원은 “양질의 맞춤형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익산시를 만들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명품 도시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하고 감동으로 보답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이젠 집에서 안심 축산물 확인하고 주문하세요’

### 군산 배달의 명수, 축산물 배달서비스 이벤트 추진

군산시는 축산물 이력정보 홍보 및 판매 확대를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배달의명수’ 축산물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25일부터 5월 16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배달의명수’ 배달앱을 이용해 축산물을 주문한 소비자 333명에게 축산물 재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6,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소비자는 ‘배달의명수’ 배달앱과 연계돼 있는 축산물 이력정보를 통해

축산물 주문 시 축산물의 안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축종·부위별 평균가격을 살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배달의명수’ 배달앱 주문 시 군산사랑상품권 이용도 가능하며 10%의 할인효과도 얻을 수 있다. 김현석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배달의명수는 지역판매 축산물의 판로 개척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업종을 확장, 축산물 배달서비스를 추진해왔다”며 “축산물 이력정보 확인을 통해

축산물의 처리 단계별 정보가 자세하게 공개되는 만큼 ‘배달의명수’를 이용하여 안심하고 주문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군산시의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해 11월 ▲배달앱 전용 축산정보(등급·이력·가격) 제공, ▲축산물 비대면 착한소비 활성화를 위한 공공 배달앱 홍보 및 프로모션 지원, ▲축산물 판매·리뷰·가격·소비동향 정보 공유, ▲환경 폐기물 저감 캠페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오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체력인증센터, 초·중·고 찾아가는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

군산체력인증센터가 찾아가는 체력측정·운동처방 서비스로 진행중인 학생건강체력평가(PAFS)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는 군산체력인증센터가 초·중·고등학교에 방문해 각 연령별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진행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4개교를 완료했으며 학교에서 큰 호응을 얻어 상반기에 학생건강 체력평가를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학생건강 체력평가와 동시에 센터 내방 체력측정도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 뿐 아니라 센터방문이 어려운 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체력측정·운동처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철저한 방역과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학생건강 체력평가를 진행하였고, 좋은 호응을 얻은 만큼 앞으로도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학생건강 체력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체력인증센터는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과정을 수료한 5명의 전문운영인력이 상주하고 있으며 만 11세 이상이면 누구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체력측정과 개별 운동처방을 받을 수 있다. 평일 9시~18시까지(점심시간 12시~13시)운영하며 화·목요일은 주간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20시까지 야간운영한다. 체력측정, 운동처방, 단체 및 출장측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체력인증센터(☎063-454-8761~3)로 신청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탄소중립 실천 영농폐기물 일제수거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한국생활개선 군산시연합회(회장 라영심)가 들녘에 방치·보관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상반기 집중수거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 생활개선회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깨끗한 농촌환경 지킴이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으며, 올해로 17년째 영농폐기물 공동수거사업 실시로 방치된 영농폐기물 자원화 및 친환경 농촌 만들기에 앞장 서고 있다. 이번 수거품목은 병충해 방제에 사용된 농약병, 시설후유스나 토양발칭에 사용된 비닐, 토양살포용 비료포대, 축산용 폐비닐 등이다. 수거 폐기물은 전량 전북환경본부에 인계해 지원하

할 예정으로 해마다 그 양은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상·하반기 122톤을 수거했다. 특히,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와 12개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생활개선회원 604명이 탄소중립! NO 플라스틱!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영농폐기물 수거확대, 영농부산물 인태우기, 1회용품 사용 안하기 등 12개 세부 실천과제를 채택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순회교육을 통해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페트병 분리수거 의무화 동참과 천연수세미 재배 사용 캠페인을 하반기에 추진 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역 소식통

### 원광대, 학사구조조정 대상 학과 재학생 지원 강화

원광대학교는 학사구조조정 대상 학과 재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한 학생지원단을 구성했다. 21일 대학에 따르면, 학생지원단은 김윤철 교무부총장을 단장으로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성공처장을 비롯한 실무 부서장과 구조조정 관련 학과 교원 및 재학생 총학생회 등이 참여한다.

오는 5월까지 운영 예정인 학생지원단은 대상 학과 재학생과 교수진 의견 수렴 후 타당성을 검토해 ‘학사구조조정 학과 학생지원에 관한 특례규정’ 등을 제정할 계획이다.

특히 재학생 소속 변경 확대·교육과정 운영 방법, 졸업 학점 인정, 폐과 대상 학과 지원 방법 등을 논의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지원을 강화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지구의 날' 기념 소등행사 추진

군산시는 제52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기념소등행사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활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시청사와 읍면동주민센터 및 녹색 아파트 2개소 등에서 소등 행사를 시행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하며, 10분간 소등해도 기후변화의 원인인 아산화탄소(CO2)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각 가정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통한 녹색 생활 실천 운동에 동참을 유도하고자 시행하게 됐다.

시 참여 대상은 시청사, 읍면동주민센터 외 녹색아파트로 지정된 현대세울아파트와 이편한세상디오션시티2차아파트 총 970세대이며, 개별 가정에서도 참여하고 싶은 경우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비산업 분야인 가정에서도 에너지 절약 및 생활용품 아껴 쓰기 자원 재활용 등의 작은 실천 문화를 통해 가속화된 지구 온난화에 많은 예방이 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